



Hello! I am Sister Mary Catherine Seli. I was born of two loving parents, John and Emma Seli in Sheraden, Pittsburgh, PA. I am the fifth of ten children. Our parents were generous with their attention and gave us a good example of living and practicing our faith. We faithfully attended Holy Innocents Parish under the pastoral care of Father Daniel O'Shea.

I was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at Holy Innocents School and graduated from Langley High School. I thought about attending Slippery Rock College as I always wanted to be a teacher. It was during Lent in my senior year that I thought about becoming a Sister. I walked to early Mass with my mother but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 was thinking about becoming a Sister. However, I did not know which community to enter. Our parish priest suggested I enter the community that taught me. I made my decision in July and my sponsor, Sister Ellen Mary McAvoy, helped me to prepare for entrance on September 8, 1943.



I spent most of my community life as a teacher in upper elementary and middle grades teaching language arts in the Dioceses of Greensburg, Pittsburgh, Tucson and the Archdioceses of Baltimore and Los Angeles. I also served as principal at St. Jerome School (Charleroi) and St. Therese (Munhall). Additionally, I took census for various parishes during summers which I thoroughly enjoyed.

In July 1991, I was appointed Assistant Archivist and worked with Sister Sara Louise Reilly, Archivist. Sister Sara Louise was a great teacher and mentor. After she retired in 1995, I was appointed Archivist. I enjoyed this work as it gave me the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great work of our Community which continues to this day. I retired in July 2006.

These days, I quietly spend my days in prayer, reading, and sewing ("Every stitch a prayer!"). My hope for the community is that we continue to do what God wants us to do - All for the Glory of God!





안녕하세요! 메리 캐더린 실라이Mary Catherine Seli 수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인 아버지 존John Seli과 어머니 엠마Emma Seli 슬하에 십남매 중 다섯째로 피츠버그의 셰라든Sheraden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무척 자상하셨고 우리 십남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Holy Innocents 본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니얼 오셰Daniel O'Shea 신부님이 본당 사목을 하셨지요.

저는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학교Holy Innocents School를 다니면서 사랑의 씨앗 수녀님들에게 배웠고, 랭글리 고등학교Langley High School를

졸업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슬리퍼리 록 칼리지Slippery Rock College에 진학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해 사순시기 동안 수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미사를 드리러 다녔지만,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또, 어느 수녀회에 들어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본당 신부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수녀님들의 수도회에 들어가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회 결정을 내렸지요. 저의 후원자인 엘렌 메리 매커보이Ellen Mary McAvoy 수녀님이 입회 준비를 도와주었고 1943년 9월 8일에 입회했습니다.



수도 생활의 대부분은 교사로서 사도직을 했습니다. 그린스버그, 피츠버그, 투산 교구, 볼티모어 대교구와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또, 성 제롬St. Jerome 학교(샤를로이Charleroi)와 성 테레사St. Therese 학교(먼홀Munhall)에서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또 여름에는 여러 본당의 교우 조사를 하며 아주 즐겁게 일했습니다.

1991년 7월에는 고문서실 부책임으로 파견을 받아 고문서실 담당자인 세라 루이즈 라일리Sara Louise Reilly 수녀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세라 루이즈 수녀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자 멘토였습니다. 수녀님이 1995년에 은퇴를 한 후에는 제가 고문서실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문서실의 일은 지금까지도 우리 수도회가 계속하고 있는 훌륭한 일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는 2006년 7월에 은퇴했습니다.

요즘은 기도와 독서,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모두 기도지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저의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